

2024
고1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작문 |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작문 상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쓴다.

[초고]

우리 할머니 댁은 남쪽 바다의 작은 섬에 있다.(할머니 댁의 위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연휴나 방학이 되면 매번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나는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 가면 바다에서 해엄을 치거나 바위틈에서 고둥과 게를 잡기도 했고 산에서 신나게 쌀 포대로 눈썰매를 타기도 했다.]([] : 할머니 댁에서 해왔던 일,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다.

▶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서의 어릴 적 기억

[할머니 댁은 섬 서쪽 바닷가의 큰 등대 근처에 있었다. 검정 바위로 만들어진 거북이 조각상이 새하얀 등대를 이고 있어서(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동생과 나는 그 등대를 ‘거북이 등대’라고 불렀다.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거북이 등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면(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함.) 할머니 댁에 가까워진 것이라서 할머니를 곧 뵙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다.]([] :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늘 우리를 마중 나오셨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뛰어가서 할머니 품에 안겼었다.

▶ 거북이 등대를 본 경험과 할머니와의 만남

할머니는 마당 텃밭에서 옥수수를 기르셨다. 늦봄(계절의 흐름 ①, 계절의 흐름에 따른 옥수수의 변화를 나타냄.)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와 같이 옥수수 씨를 뿌렸고, 여름 방학(계절의 흐름 ②)에는 점점 자라는 옥수수에 물을 주는 일을 도와드렸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옥수수 껍질을 살짝 열어서 얼마나 익었는지 들여다보다가 할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했다. 꾸중을 듣고 시무룩해 있는 나에게 할머니는, “뭐든지 다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법 이란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해.”(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생생함이 느껴짐.)라며 토닥여 주셨다. 나는 익어 가는 옥수수를 보며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경험을 통한 깨달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이므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늦여름(계절의 흐름 ③)에는 연두색 옥수수수염이 점점 갈색빛으로 물들며(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옥수수가 여물었다. 가을(계절의 흐름 ④)에는 기다림의 결실인 샛노란 옥수수(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를 수확하며 나는 한 뼘 더 성장했다.

▶ 옥수수 수확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

할머니께서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었던 기억도 있다. 서울에서 갈치로 만든 음식을 먹다 보면 갈치국을 끓여 주시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갈치국은 양념장을 넣어 칼칼하게 졸인 갈치조림과 달리 갈치, 늙은 호박, 배추를 넣어서 맵지 않도록 맑게 끓인 요리이다.(갈치국과 갈치조림의 대비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함. 이와 동일한/다른 표현 방법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대비의 특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갈치국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어시장에서 싱싱한 갈치를 사 오셔서 갈치국을 해주셨다. 할머니의 갈치국에서는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다.(미각적 심상)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 맴돈다. 갈치국을 맛있게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할머니를 떠올리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진다.(촉각적 심상)